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1. 6. 18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미 주

- 美 재무부, 예멘 후티叛軍 관련자 11명 경제 제재
 - 6.11 美 재무부는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계해 이란産 원유·제품을 판매해 수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예멘 후티叛軍 관련자 11명에 대한 경제 제재 단행
 - * 미국은 자금 총책으로 이란에 근거지를 둔 예멘인 「아흐마드 무함마드 알자말」을 지목
- 캐나다, 무슬림 일가족 살해범 테러 혐의 적용
 - 6.14 캐나다 연방경찰(RCMP)은 지난 6일 온타리오州에서 무슬림 일가족을 트럭으로 치어 고의로 살해(사망 4, 부상 1)한 「너새니얼 벨트만」(20세, 남)에게 테러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고 발표
 - * 부총리도 「벨트만」의 행위를 '이슬람포비아' 행위이자 '테러'로 규정

유럽

- 佛, 대테러작전으로 언론인 납치·살해 무장조직원 제거
 - 6.11 「파블리 플로랑스」佛 국방부장관은 지난 6.5 말리 북부에서 전개한 대테러작전으로 지난 '13년 RFI 라디오 소속 자국인 기자 2명을 납치·살해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조직원 4명을 제거했다고 발표
 - * '13.11월 피해 기자들은 투아레그族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叛軍단체 아자와드 전국해방운동(NMLA) 대변인을 인터뷰한 뒤 무장괴한에게 납치되어 피살
- 英 법원, 네오나치 전력 남성 테러 혐의 중형 선고
 - 6.14 영국 법원은 네오나치 단체 활동 전력자 「모리스」(34세, 남)에 대해 △ 反유대·이슬람혐오·인종차별 선전물 온라인 게시 △ 폭탄 제조법 수집 등 테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

○ 스위스, 국민 57% 「新테러방지법」 찬성 투표

- 6.14 스위스는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던 「新테러방지법*」 시행 여부에 대해 지난 13일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, 과반수 이상인 57%가 찬성
- * '15년 佛에서 발생한 테러를 계기로 제정, UN·인권단체는 인권침해 가능성 우려 표명
- ** 범죄가 의심되는 △12세 이상 국민에 대한 출국금지 등 현재보다 강력한 감시 허용 및 행동 제한·심문 △15세 이상 국민은 최대 9개월 동안 가택 연금 조치 등

중 동

○ UN, 「알카에다-탈레반 정보 보고서」 공개

- 6.9 UN 감시팀은 △알카에다 탈레반간의 긴밀 협력 상황 △‘이슬람 에미리트 연합군’ 부사령관인 탈레반의 「시라주딘 하카니」가 알카에다 지도부의 일원이라는 내용의 정보 보고서 공개
- * 同 보고서는 알카에다는 향후 수년간 '01년 당시와 같은 위협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

아 · 태평양

○ 싱가포르, ISIS 추종 여성 구금

- 6.9 싱가포르 내무부는 부상당한 ISIS 대원을 돕기 위해 분쟁지역으로 갔다는 이유로 활동제한 명령을 받은 「루카야 람리」(34세, 女)에 대해 허가없이 인터넷·SNS 접속, 재활 프로그램 불참 등 제한명령을 위반해 구금했다고 발표
- * 同인의 남편은 테러 선전물 소지 혐의로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에서 3년형 선고('20.3월)

○ 금융위원회, 암호화폐 거래소 현장컨설팅 개시

- 6.15 금융위는 지난 3.25일 개정·시행 '특금법*'에 의거, △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자등록 신고 △정보보호 관리체계(ISMS) 인증 △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개설 등 암호화폐 거래 관리 컨설팅 착수를 발표
- *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규제를 주내용으로 개정

나이지리아, 보코하람 소행 추정 민간인 대상 자폭·로켓공격 테러

- '18.6.17 나이지리아 북부 보르노州에서 이슬람 테러단체 보코하람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자살폭탄 및 로켓공격 테러가 발생, 34명 사망
- 同 사건은 이슬람 단식월 라마단 종료를 기념하는 '이드 알 피트르' 축제 後 귀가 중인 군중을 겨냥한 자살폭탄 테러로 특히 로켓추진 수류탄까지 추가로 발사
- 한편, 나이지리아에서는 이미 1월에 극단주의 사상에 경도된 10대 청소년 폭탄테러(10명 사망)와 5월에 2회의 모스크 공격 자폭테러가 발생(86명 사망)
- 이와 관련, 남아공 소재 정보분석업체 '시그널 리스크'는 "이번 테러는 보코하람이 여전히 나이지리아 북동부 지역에서 대량살상무기(WMD)의 실질적 운용 능력을 유지중임을 반증한다"고 분석
 - * 보코하람은 나이지리아軍의 토벌작전으로 세력은 약화되었지만 지난 7년동안 무장습격, 테러공격으로 통해 2만명 이상을 살해하고 230여만명의 피난민 발생

< 보코하람(Boko Haram) >

- (결성) '서구식 교육은 죄악' 이라는 뜻이며, '02년 「무함마드 유수프」가 조직
 - * 테러단체 지정 : 영국('13.7), 미국('13.11), UN('14.5)
- (핵심인물) 「아부바카르 세카우」(최고 지도자)
- (연계세력) ISIS, 바쿠라그룹
- (활동지역) 나이지리아(카노·바우치·보르노·플래토州 등 중·북부), 카메룬 북부, 차드 서부, 니제르 남동부 지역
- (활동수법) 對정부 게릴라戰, 마을 습격 및 민간인 무차별 학살
- (참고사항) '15.3월 「아부바카르 세카우」가 ISIS에 충성을 맹세하였으나, '16.8월 ISIS가 「알 바르나위」를 신임 지도자로 임명하자 내분 발생, 이후 「세카우」가 이끄는 보코하람과 「알 바르나위」가 이끄는 'ISIS-西아프리카지부'로 분열